

김장혁문학작품집

사랑은

요술쟁이야

연변인민출판사

김장혁문학작품집

사랑은 요술쟁이야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현순

책임교정: 김홍화

표지설계: 최 강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爱情是魔术师: 朝鲜文 / 金长赫 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7.10

ISBN 978-7-5449-0024-9

I. 爱 . . . II. 金 . . . III. 文学—作品综合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 217.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7) 第158368号

爱情是魔术师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吉林省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11.75 字数: 35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024-9(民文)

版次: 2007年 10月 第 1 版 2007年 10月 第 1 次印刷

印数: 1-1000 册 定价: 25.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사랑은 요술쟁이야

책머리에

나는 고중시절부터 기자와 작가로 되려는 꿈을 꾸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는 일본에 류학을 가려고 모험의 길을 걸으려고도 하였다. 그러나 외동아들로서 나는 부모에 대한 효성심 그리고 현실적인 문학인이 되라는 스승과 형님, 누나, 친구들의 충고를 듣고 오늘까지 현실에 뿌리를 박고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며 두부모만한 글을 쓰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반백고개에 오르고보니 교원으로, 기자로, 편집으로 눈앞의 일에 바빠 맴돌아치다나니 그렇다할만한 문학작품을 써내지 못하였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문학창작이 무엇이기에 내가 그런 고생을 다하였는지 모른다. 교편을 잡았을 때에도 머리에 떠오르는 령감이 있으면 교수안뒤장에 적어놓았다가도 밥상 하나 놓으면 돌아앉을 자리도 없는 코구멍만한 세집에서 무더운 여름밤을 패면서 글을 썼다. 방송국에서 기자사업을 할 때 두부모만한 글이라도 쓰려고 그 추운 엄동설한에 자전거를 타

고 귀와 손을 열구며 눈길을 달아다니면서 취재하고 밤이면 정신을 가다듬고 보도기사를 제시간에 써냈다. 그것도 달마다 20여편좌우 보도기사를 써냈다. 라디오를 켜놓고 자기가 쓴 보도기사를 들을 때면 나는 기자로 된 긍지감을 가슴 뿌듯이 느끼면서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하였다.

한해는 남들이 따뜻한 온돌에서 설을 설 때 나는 눈보라가 뽕뽕 휘몰아치는 엄동설한에 《삼도만토비수청》 사건을 취재하려고 삼도만진에 갔었다. 나는 삼도만진에서도 한 30리 떨어진 평강촌에 가서 평강촌전투부터 취재하였다. 그런데 그 마을의 한족들은 삼도만의 토비는 토비가 아니라고 하면서 취재하러 간 나에게 점심대접도 하지 않았다. 나는 방법없이 점심도 먹지 못하고 삼도만진으로 돌아가는 고달픈 길에 들어섰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계사니털같은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면서 빠스도 목재실이차 한대도 얼씬하지 않았다. 할수없이 나는 길가의 눈을 한웅큼씩 쥐여 입에 넣어 먹으면서 주린 배를 달래며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걸어야만 하였다. 어찌나 배가 고프고 기진맥진하였던지 한걸음도 내딛기 힘들었다. 그러나 나는 물았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여 굶어죽고 얼어죽을것 같아 이를 악물고 걷고 또 걸었다. 토끼꼬리만한 겨울해가 꼴깍 넘어가자 어두운 밤길을 비틀거리면서 걷고 또 걸었다. 몇시간후 끝내 삼도만진의 희미한 전등불빛을 볼수 있을 때에야 나는 《이젠 살았구나.》하고 한숨을 후 내쉬면서 굶고 얼어죽을것 같던 공포속에서 해탈되었다. 드디어 삼도만려관에 문을 때고 들어서자마자 나는 까무러쳐 구들바닥에 쿵 쓰러졌다. 밤중에야 소생한 나는 밥 두사발이나 먹고 밥에 취해 또다시 까무러쳤다. 이튿날 나는 삼도만진정부일군의 도움을 받아 토비의 문서질을 한적이 있는 한 한족로인을

끝내 찾아내었다. 나는 그날 그를 도와 작두로 그 집 말머이를 썰어주면서 토비들의 내막과 토비숙청전투과정을 낱낱이 조사해냈다.

물론 내가 그렇게 굶으면서 취재해 쓴 처녀작력사실화 《삼도만토비숙청》이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남의 이름으로 잘못 나갔지만 나는 그 력사사건을 세상에 공개한것으로 하여 긍지감을 느꼈다.

나는 고독한 삼도만려관에서 문학창작과 취재의 길이 얼마나 외롭고 고달픈가를 가슴아프게 느끼면서 인생과 문학창작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는 그때 대학교시절부터 시작한 물고기장사, 젓소장사를 계속하였더라면 얇은 로임 봉투에 얹매우지 않는 부자로 될수도 있었다. 내가 만약 80년대초에 일본을 류학가려던 모험의 길을 선택하였더라면 부자도 되고 더욱 크게 문학창작을 하였을수도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현실에 립각하여 줄작이라도 써오면서 황금시절을 다 파묻은 내 반백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

30년전 학창시절에 내가 창작열에 몸을 달구면서 한편의 글이라도 써내려고 눈보라가 뽕뽕 휘몰아치던 삼도만산골을 기아에 허덕이면서 해냈던 일을 회상할 때마다 나는 지금 이런 좋은 환경에서 좋은 글을 많이 써내지 못한것으로 하여 자책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에게 채찍질을 하게 된다. 나는 삼도만의 고독한 려관에서 다졌던 맹세대로 무딘 필이나마 끊임없이 날리고 또 날렸다. 곡절을 겪거나 상처를 입을 때면 부어오른 상처를 매만지면서 경험과 교훈을 찾고 지혜를 키웠으며 곡절과 상처를 동력으로 삼아 분발하여 필을 들군 하였다. 그리하여 《38선에서 싸우던 나날》의 력사이야기도

장편실화소설로 펼쳐보이게 되었고 왕청현인민법원 《인민의 훌륭한 법관 록도유》도 써내게 되었으며 나는 한동안 《법률과 생활》 잡지의 편집을 하면서 정탐실화작가거나 정탐소설가로 되려는 꿈도 꾸어보았다. 그리하여 휴식일이면 공안국과 법원, 여자교양수용소 등 부문을 찾아다니면서 연변주내외를 진감한 특대형사사건과 치안사건들을 취재하여 장편정탐실화 《부르하통하강반의 살인악마의 유령》과 같은 수많은 정탐실화를 써내었고 높은 담장안의 철창속에 갇힌 새파란 녀성들의 룰락과정이야기도 써냈다. 또 어떤 때에는 괴상한 랑만적인 사랑에 대한 감수나 인생철학이나 처세철학도 보여주려고 중편소설 《사랑환상곡》을 비롯한 소설과 수필을 썼으며 어린이들을 위하여 아동문학작품집 《호랑이와 사냥군》을 묶어내었고 이번에는 과학서적들을 들춰보면서 과학적인 환상에 폭 빠져 《괴물 클론바우꼬마대통령의 모험기》, 《지구보위전》과 같은 과학환상소설도 내놓았으며 척추병치료전문가 최영범소장의 이야기를 비롯한 실화, 수필과 함께 묶어 이 작품집을 내놓게 되었다. 물론 누구도 사랑의 대문을 활짝 열고 깊이 파문어두었던 사랑이야기를, 무덤까지 아무도 몰래 가지고 가려던 그 사랑이야기를, 개인은사와 같은 사랑이야기를 파내어 세상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내놓으려고는 하지 않을것이다. 그런 사람은 진짜바보이기때문에. 그러나 어쩐지 나는 한번 그런 바보가 되고싶은것을 어찌 할수 없다. 나는 울고 웃었던 그 사랑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뼈속에 새겨두고 싶었다. 그리하여 그런 사랑이야기들로 사랑수필 몇편도 쓰게 되었다.

나의 실화에는 내 20여년의 기자, 편집 생활에서 취재의 발자욱이 찍혀있고 소설과 수필에는 내 생활의 화폭들이

살아서 춤추고있다.

그러나 수준의 제한으로 하여 예술성이 높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또 눈보라치던 고독한 삼도만려관에서 다진 맹세에 비하면 아직 문학창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책을 내준 연변인민출판사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나의 취재를 열정적으로 도와준 공안국과 법원, 여자감옥의 관계자 여러분과 이 책의 출판에 물심량면으로 도와준 할빈시 현대약물연구소 최영범소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저 자

2007년 6월 21일

차례

제1부 수필편

- 처참한 첫사랑/ 2
- 사랑은 변덕스러운 요술쟁이/ 5
- 마음 아픈 짝사랑/ 8
- 사랑은 사닥다리가 아니야/ 12
- 랑만적인 사랑을 하면서 살고싶다/ 15
- 부산누나 송사가 주는 계시/ 22
- 청춘의 고백/ 29
- 소비관념을 갱신해야/ 36

제2부 실화편

- 척추병치료전문가 최영범소장의 이야기/ 44
올가미/ 80
높은 담장안의 아가씨들/ 88
《9.07》특대로임강탈사건시말/ 106
왕청 락타산기술의 무주고혼/ 116
연길 《2.01》특대저금소살인강탈사건해명기/ 129
형사기술수사전선의 초병/ 148
한 노래방아가씨의 참회/ 157
풍류녀인이 낳은 희비극/ 163
첫사랑이 낳은 비극/ 168
미안해! 죽마고우 내 첫사랑아/ 180
투도진 《12.2》입실강탈살인사건시말/ 193

택시업의 곤혹/	206
살인강탈악마무리나포기/	223
꽃피지 못한 첫사랑/	246

제3부 아동소설편

괴물 클론바우꼬마대통령의 모험기/	261
왕따/	312
지구보위전/	317

제1부 수필편

처참한 첫사랑

누구도 사랑의 대문을 활짝 열고 깊이 파묻어두었던 첫 사랑이야기를, 무덤까지 아무도 몰래 가지고 가려던 그 첫 사랑이야기를, 개인은사와 같은 그 처참한 첫사랑이야기를 파내여 세상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거야. 그런 사람은 진짜바보야. 그러나 어쩐지 나는 한번 그런 바보가 되고싶다. 누구에게 구경시키기보다는 나의 그 울고 웃었던 처참한 첫사랑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뼈속에 새겨두고싶다.

세월이 흐르긴 흘렀구나. 내가 어느덧 선고개에 올랐으니 말이다. 자다가 깨어나 벌떡 일어나 곰곰히 생각해보아도 그 렇다할만한 낭만적인 사랑도 해보지 못하고 나이를 먹은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지금 뒤로 멀리 돌이켜보면 첫사랑에 미쳤던 나날들이 허무하기도 하다. 내가 진정 그 처녀를 사랑하였던가? 나는 별나지도 않으면서 그 처녀를 울리고 속을 태우

게 하였고 또 자기도 함께 그 죽일 놈의 첫사랑의 고통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았던가!

나는 첫사랑부터 비참하였다. 아니 너무너무 한심하게 처참하였다. 사춘기에 갓 들어선 나는 숲속에 핀 나리꽃 같이 예쁜 녀자에 미스 은숙에게 홀딱 반해버렸다. 그 녀자애는 어찌면 그렇게 예뻐올가? 나를 뵈히 바라보는 그 초롱초롱한 감장눈은 얼마나 매력적이었던가. 그러나 기실 그 녀자애는 나긋나긋한 나리꽃이 아니라 가시 돋친 선인장에 피여난 무형의 꽃인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런줄도 모르고 이 어리석은 놈은 그 꽃을 향해 추파같은 쪽지를 고요한 물에 돌맹이를 던지듯이 날렸지 뭐야. 결과 손 한번 쥐여보지도 못하고 엉망이 되게 애들에게 놀리움을 당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 놀리움에서 벗어나려고 허둥대지 않았던가! 물러고 드는 개를 치려고 몽둥이를 휘두르듯이 한다하는 주먹친구들을 추겨 놀리던 애들을 족치기도 하고 또 얻어맞기도 하였지. 지금 생각해도 그 쪽지를 선생님에게 바친 미스 은숙이가 밉고 애들앞에서 공개한 담임선생님의 무책임하고 무지한 행위가 가소롭기만 하다.

그래 내 쪽지가 그 당시 그 녀자애에게는 그리도 파지보다 못하였을가? 동네애들에게 보이고 담임교원에게 바치고 다른 애들에게 말하기까지 하다니? 그러고도 몇십년후에 미스 은숙은 후회막급이라고 토로할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나에게 시집오지 못한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할것이면 왜 진작 그 쪽지를 바치지 말고 숨겨두지 않았을가. 세상에 후회약이 없다면서 통탄할것이면 왜 그렇게 소홀히 남의 첫사랑을 구경거리로 내버렸을가! 이제 와서 90고개에 오른 내 어머니까지 잘 모셔주겠다고 할것이면 왜 한 소년의 첫사랑을

그렇게도 허무하게 짓밟아버리었느냐? 나를 자기 첫사랑이라고 한 여자를 사랑해 가정을 못하고 애를 낳고 부모를 모시고 수십년을 살면서 달려온 나에게, 마음속깊이 상처를 입은 나에게 그런 후회에 찬 뒤늦은 사랑을 던져와서 뭘 하려는건가? 시든 나리꽃이 되어가지고 흐느끼면서 가냘프게 통탄한들 바위처럼 굳어진 내 마음을 괴롭힐뿐 흔들수 있겠는가?

아, 죽일 놈의 그 첫사랑, 구경 이 세상에서 성공된 첫사랑이 몇이나 될가마는 왜 이다지도 한 여자를, 이다지도 한 남자를 괴롭히는걸까? 성공되지 못한 첫사랑은 아예 다시 보지 않는것이, 못보는것이 더 매력적이고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을거야. 그 첫사랑이 아무리 비참하고 유치하고 웃음거리더라도...

사랑은 변덕스러운 요술쟁이

내가 무엇이 잘났는가? 그 사람에 그 인물체격이전만. 내가 고증을 졸업하고 농촌에 돌아가 소똥을 밟으면서 소궁둥이를 칠 때 어느 처녀가 나를 결눈질이나 하였던가? 10대청년시절 소를 모는 방목군인 나를, 목동인 나를 누가 사랑이나 하였던가! 내가 방목하는 황소들만이 내 존재를 알고있었을뿐이었지. 나는 항상 산등성이에 소들을 몰아놓고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산아래 펼쳐진 사례 긴 강냉이밭과 올망졸망하게 누워있는 논바닥들을 내려다보며 노래를 부르면서 고독하고 쓸쓸한 내 마음을 달래곤 하였다.

우리 생산대 집체호에는 이쁜 처녀들이 많고많았지만 나를 사랑하기는커녕 그때 내 그 허전한 마음을 어느 처녀인들 알아주고 위안해주었던가? 교원집 귀공주들인 그 처녀들은 나를 원눈으로도 보지 않았지. 절벽우에 돌아난 진달래 같은